

# 목포시,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 확정

노연택 바르게살기목포시협회장, 소외계층 봉사

목포농업협동조합, 농번기철 시민 편익 증진 공로



2020년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목포시는 7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공개모집한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 지난 16일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봉사 부문에 노연택(60)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장, 특별상 부문에 목포농업협동조합을 2020년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연택(60) 회장은 연산동 지역사회회보장협의회 위원장 및 명예동장 등으로 활동하며 집수리 사업, 밥차 봉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참여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방역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환경정화

참여 등 다수의 봉사활동을 펼친 집과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에 사심 없이 참여하는 등 한결같은 태도로 나눔을 실천한 점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이후 3년 만에 개인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목포농업협동조합은 목포4대 관광거점도시 및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전국 1천여개 농협 및 관련단체에 목포시 방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거동불편 노인대상 보행기 지원,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매년 5-6월 농번기철 지역농가 봉사활동으로 시민 편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암군, 임도변 환경정화 활동

농덕리 ~한대리 5일간 풀베기 작업·쓰레기 수거



영암군 영암읍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관내 임도변 풀베기 작업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영암읍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연도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지만 태풍과 집중호우로 임도변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자연경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

여 농덕리 ~ 한대리 14.6km 구간에 걸쳐 임도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도변 풀베기 작업에 참여한 영암읍 의용소방대(회장 이권수)와 영암읍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진호) 회원 30여명은 풀베기 작업과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임도변에 파내려와 방치된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영암읍 관계자는 "관광객과 추석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영암읍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태호 기자

# 함평경찰, 음주단속활동 강화 사고예방 앞장서

최근 "코로나로음주단속 안한다"국민의식 팽배에 일침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비접촉 선별

적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로 음주단속 안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야 구분없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6.25일부터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고 특히, 코로나 발생으로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안한다"는 의식 고조로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골목길등 음주운전 의심 주요목 차단등 수시 음주단속 추진으로 음주운전이란 범죄행위를 뿌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 0.79%
-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운전 경력 2회
- 측정비용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음주운전 치사상치 처벌강화
- 음주 교통사고로 치사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뿌리를 계획이다.

박종열 서장은 "음주사고 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 인력·장비 집중 배치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등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의지를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 영광군, '규제어로 해결사례' 점검



2020년 한 해 동안 영광군은 적극 행정을 통해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군은 16일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로 인한 군민과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우수사례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석봉 부군수 주재로 실시된 점검회의는 올 한 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각 팀별 사례 발표 후 보완하여 추진할 사항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전국 합계출산율 1위 달성,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용자금 지원사업 확대, 영광도서민 여객선 천원에 탄다, 전국 최초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개발 성공 등 13건이다.

점검 결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실적이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신안 다큐멘터리 '섬과 꽃' 목포MBC 18일 방영

여행자 시선 다가서는 인문주의 여행 컨셉

목포문화방송(MBC)이 신안군의 아름다운 비경을 다룬 특집다큐멘터리 '섬과 꽃'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다가서는 인문주의 여행'을 컨셉으로 신안의 여름 꽃과 아름다운 풍경을 정제된 영상미로 보여줄 예정이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되는 이번 '섬

과 꽃' 다큐는 오늘 1부 방영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신안에서만 볼 수 있는 계절별 야생 꽃과 아름다운 절경'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다큐는 신안의 꽃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 곳에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제 1부 '여름에 만난 꽃빛'에서는 야생화를 찾아 기록하는 '이원규' 작가가 출연해 흥도원추리와 흥도까지수염 등 '천연기념물 제170호' 흥도에 뿌리내린 550여 종의 희귀 야생화와 아름다운 풍경이 소개된다.

신안 도초도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국공원을 조성, 수국 11만7465그루(200만 송이)가 심어져 있고 화귀종과 신품종 등을 볼 수 있다.

수국 외에 애기동백, 향나무 등 2100그루의 다양한 나무를 보유한 곳으로 유명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코로나 19의 여파로 신안의 '수국축제'가 취소되면서 많은 여행객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다큐멘터를 통해 전남 신안에서만 볼 수 있는 꽃들과 섬의 이야기로 진한 감동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과 꽃' 4부 중 1부 '여름에 만난 꽃빛'은 오는 18일(금)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무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일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을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과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원 시설을 설치해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8

억 5천억, 지방비 13억, 자담 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발전시설 379개소(태양광 359, 태양열 20)를 설치하여 주택 286개소와 상업건물 73개소 등에 대해 1,915kW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일로읍과 삼향읍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2022년 공모사업을 통해 다른 읍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 이내 전 읍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이성기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